

엔터테인먼트

30주년 맞은 **노래자랑** MC 송해

“국민 모두가 가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가수입니다. 노래를 즐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국노래자랑’이 30주년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일로 정확하게 30년을 맞은 KBS 1TV ‘전국노래자랑’의 MC 코메디언 송해(83)는 이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1980년 11월9일 출발한 ‘전국노래자랑’을 1984년부터 26년간 진행한 그는 이날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송해는 “인생은 재천이라 내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원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웃었다.

“초창기 방송을 보면 노래하는 분들의 몸놀림이 거의 비슷했어요. 대부분 가만히 서서 노래하고 여자분들은 거의 다 한복을 입고 퍼머를 하셨죠. 그런데 요새는 헤어스타일도 각양각색이고 노래도 무척 다양합니다. 출연자가 변하니 저도 안 변하면 못따라갑니다. 요즘은 무대에 나올 때부터 춤추고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박상철, 장운정 등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탄생한 스타 가수도 많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인사가 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가수들도 손으로는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가수입니다. 노래자랑 출신으로 스타가 된 분들도 아주 많고, 정말 노래를 사랑하세요. 해외동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동포들만 대상으로 한 공연을 서너차례 했는데 그분들은 한번 모이면 1만 명이 모입니다. 대단하죠. 광양 공연 이후 북한을 못가고 있는데 개성공단 같은 데서 노래자랑을 하면서 남과 북이 어울리면 그게 바로 통일이 아닐까 싶어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 노래하고 즐기면 그게 통일이 아닐까요.”

80이 넘는 고령인 그는 ‘전국노래자랑’ 진행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진행 초창기에는 경부선도 서서 타고 다녔습니다.

“26년째 진행...일이 건강유지 비결

박상철·장운정 등 출신가수 많아

개성공단서 남·북 다시 함께했으면”

건강을 위해 절대 앉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도, 녹화하면서 3시간여 무대에 서 있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녹화를 하기 위해 꼭 하루 전에 그 지역에 가서 현지를 답사하는 것도 워밍업과 함께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26년을 진행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었다.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관객이 호응이 없을 때는 ‘내가 진짜 그만뒀어야지’ 싶죠. 그런데 지난번 천안함 사건 때 5주 불방했더니 왜 방송을 안하냐고 항의가 쇄도했어요. 그런 분들을 봐두고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웃음)”

그는 “녹화하면서 출연자들의 돌발행동도 많다. 갑자기 날 들어올 틈 때는 정말 아찔하다. 내 머리에 스타킹을 뒤집어 씌우는 분도 계셨고 목마를 태우겠다고 나섰다 같이 넘어져 어깨를 다친 적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을 통해 관객의 호응을 받을 때면 ‘내 역할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노래자랑은 노래도 잘해야 하지만 재미도 있어야 합니다. 전문 콩쿠르 대회 아니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미있게 노래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ntertainment

김규리 단막극 출연

KBS ‘어서 말을 해’

배우 김규리가 KBS ‘드라마 스펙셜’의 단막극 ‘어서 말을 해’(극본 이도열, 연출 윤성식)에 출연한다.

10일 제작사에 따르면 ‘어서 말을 해’는 결혼 적령기 두 남녀의 인연 찾기를 그린 드라마로, 김규리는 푹 부러지는 성격의 구청 공무원 최영희를 연기한다.

영희는 짝사랑하던 계장이 구청을 그만두고 소설을 쓰려고 하자 그에게 마음을 고백하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악성 루머에 마음고생을 한다.

영희의 친구인 기영은 ‘동이’에 출연했던 배우빈이 연기한다. ‘어서 말을 해’는 13일 밤 11시15분 방송된다.



김효진

“여자 ‘비딩’에 도전해요”

(비주얼 덩어리)

“하루 1~3시간 요가로 몸매 유지

결혼이요? 때가되면 해야죠

하루하루 행복해 30대 기대돼요”

“쿨하고 거침없는 성격의 여배우예요. 한껏 예쁘고 매력적으로 꾸미고 나올 수 있죠. 여자 ‘비딩’에 도전해보려고요. (웃음)”

배우 김효진(26)이 8일 첫선을 보인 KBS 월화극 ‘메리는 외박중’을 통해 ‘비주얼 덩어리’, ‘비딩’에 도전한다.

최근 2년간 반듯한 커리어우먼이나 우물한 캐릭터를 주로 연기해온 김효진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스물여섯 여배우의 매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배역 이름이 서준이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름이 외자

예요. 준, 그런 이름답게 캐릭터도 멋져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나 뽀뿌에 목숨 걸지도 않죠. 한마디로 부러운 캐릭터죠.”

메리(문근영 분)의 이중 가상 결혼이라는 발칙한 이야기를 그리는 이 드라마에서 서준은 메리의 두 남편인 무결(장근석), 정인(김재욱)과 특별한 인연을 맺는다. 무결과는 연인 사이였다 헤어진 지 1년 뒤 다시 엮이게 되고, 정인과는 제작사 대표-주연배우의 관계이자 친구다.

16살에 데뷔한 아이돌 스타 출신인 김효진은 주로 트렌디 드라마에 출연하다 2008년 SBS 주말극 ‘행복합니다’에서 변화를 준 후 ‘오감도’ ‘창피해’ 등의 영화와 연극 ‘풀러브’에 출연하며 진지하고 심각한 연기에 매진했다.

“연기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 수업을 받는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도 독립영화 위주로 출연했고요. 연극은 이번에 석달간 했는데 모든 것이 깨달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연습 과정은 정말 힘들었는데 매회 공연하면서 제 안에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기

했어요. 지난 2년간 제가 부족했던 점을 많이 발견했고 어떻게 극복해야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스스로 많이 열렸다”며 “연기가 100까지 있다면 이제 10-20 보여준 것 같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캐릭터가 많다”고 했다.

김효진은 배우 유지태와 4년째 공개 연애 중이다. 어떤 때는 작품보다 연애로 더 유명세를 치르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유지태가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김효진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결혼요? 때가 되면 하겠죠.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결혼은 자연스럽게 성사되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공개연애를 해도 불편한 게 없어요. 오빠가 연기 선배니까 조언과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연기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날 그를 본 많은 이들이 새처럼 가는 다리와 갈마른 몸매에 혀를 내둘렀다.

“잘 먹어요.(웃음) 요가를 많이 하죠. 하루 1~3시간씩 해요. 땀이 쫓 나죠. 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그는 “빨리 30대가 되고 싶다. 항상 더 좋아지려 노력하니 나이를 먹는 게 두렵지 않다”며 “30대가 되면 좀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며 웃었다.



“광주CBS 역사50년, 미래50년 비전선포 기념”

광주CBS 합창단

정기연주회

2010년 11월 22일 (월) 오후 7시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CBS



광주CBS Meta Philo Cellisten



광주CBS 권사 합창단



광주CBS 소년소녀합창단



광주CBS 여성 합창단

특별출연 : 김민기(국제신대 교수)

TV

· 위성(스카이라이프): 412번 · 케이블: 광주68,74번 나주60번, 서남권59번, 담양42번

Radio FM103.1

인터넷 www.gjcs.co.kr